

Issue Comment

2024. 11. 27

HL 만도 204320

만도 업데이트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02. 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김준성입니다. 만도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 HL만도, 현재 주가 -8% 하락 중

▶ 트럼프 당선인, 멕시코 관세 부과 언급

- 전일 트럼프 당선인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2025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

- 관세 부과 우려로, 멕시코 양산 거점 보유한 미국 완성차 및 부품 업체들 주가 큰 폭 하락

- GM (시가총액 \$60bn) -9%, Ford (\$44bn) -3%, Stellantis (\$37bn) -6%, Aptiv (\$13bn) -3%, Magna (13bn) -5%

▶ HL만도, 멕시코 법인 현황 점검

- 2017년 1월 양산 거점 가동 개시

- 사업 현황: 제동/ 조향/ 현가 3대 샤시 제품 모두 양산 중이며, 주요 고객은 현대/ 기아/ GM/ 북미 스마트카 선도업체의 미국 공장

- 주요 변화: 2025년 1분기부터 북미 스마트카 선도업체를 필두로 미국 시장에 차세대 브레이크 시스템인 IDB (Integrated Dynamic Brake, 전세계 4개 업체만 양산 가능한 핵심 부품) 납품 예정. 대당 단가 40만원 이상이며, 물량은 2025년 70-80만대, 2026년 100-110만대 규모

▶ 관세 부과와 만도에 대한 판단

- 관세는 정치적 무기라고 판단. 멕시코 관세 부과 언급도 마찬가지. 트럼프 당선인이 얻고자 하는 것은 불법 이민자 유입 방지. 이를 위한 멕시코 정부의 협조를 원하는 것. 멕시코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관세 부과 우려 고조 속 Tesla Giga Mexico 착공이 무기한 보류되어 있으며, BYD의 50만대 양산 거점 구축 계획도 보류 중. 멕시코 정부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적극적 공조를 통해 관세 부과 우려는 소멸될 수 있는 이슈라고 판단

- 만도의 경우 관세 부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려 과도하다고 판단. 설령 관세가 부과된다 해도 타격은 제한적. 2025년 매출로 이어질 기존의 모든 수주 계약은 FCA (Free Carrier) 및 EXW (Ex Works) 조건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 부담은 모두 완성차 업체의 몫
- 정리하자면, 실제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과되더라도 이에 대한 부담은 완성차의 몫이지 만도의 실적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 만도는 국내 부품업체 중 유일하게 스마트카로의 시장 전환 속에서 강한 성장이 가능한 포지션을 구축. 긍정적 투자의견 유지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